南 "포탄 도발 사과" 北 "대북 방송 중단"…양보 없는 줄다리기

'일촉즉발' 전쟁 위기서 협상까지…긴박했던 3박 4일

김양건 대남비서 먼저 제의
南 2+2 회담 수정 제시 성사
대화 의지 강해 합의 가능성

지난 20일 북한의 포격 도발로 시작된 한반도 위기는 23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기까지 긴장과 반전이 이어졌다.

북한은 도발과 함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어 48시간(22일 오후 5시) 안으로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 수단을 전면 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최후통첩을 하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러나 추가도발 최후통첩 시한 만료를 앞두고 북한 대남업무를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가 대화를 제의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부에 따르면 김 당 비서는 지난 21일 오후 4시 본인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21일 혹은 22일 판문점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1대 1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우리측은 2시간만인 오후 6시께 김 당 비서가 아닌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의 접촉을 제의하는 김 안보실장 명의의 수정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

한동안 답이 없던 북측은 22일 오전 9시 35분께 황 총정치국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측 대표로 황 총정치국장과 김 당 비서가 나올 테니 남측에선 김 안보실장과 홍 장관이 나왔으면 한다는 수정 제의를 했다.

김 안보실장은 오전 11시 25분께 이에 동의한다는 통지문을 보냈고, 북측이 12시 45분께 동의한다는 답신을 보내오면서 남북 고위당국자접촉이 성사됐다. 북측의 첫 접촉 제의에서 최종 확정시까지 20시간 45분이 소요된 것이다.

고위급 접촉은 10시간 가까이 지난 23일 새벽 4시 15분에 정회했다. 북측의 경우 언론을 통해 고위급 접촉 사실을 신속히 전하면서 우리나라를 그동안 많이 사용하던 '남조선괴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표현하는 등 종전과는 다른 자세를 보여 주목됐다.

남북은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11시간 만에 접촉을 재개했다. '밤샘 마라톤협상'에서 남북은 일단 강한 협상의지를 확인했지만 해법 도출을 위한 각론에서는 팽팽히 맞섰다. 서로 다른 견해차에도 고위급접촉을 재개한 것은 대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날 10시간에 가까운 마라톤협상에서 북측은 이번 위기의 원인이 된 북한의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도발과 20일 DMZ 인근에서의 포격 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리 군의 대북심리전 방송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위기해소의 출발은 북측이 우리측 부사관 2명에게 큰 부상을 입힌 지뢰도발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북측이 최근 도발에 대해 솔직한 인정은 하지 않더라도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을 얻어내기 위해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주체는 생략한 채 '군사분계선에서의 최근 상황'이라는 두루뭉수리한 표현으로 유감 표명을 할 여지는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북측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도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면서 원칙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가 명확한 주체표현이 없는 유감을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협상 과정에서 남북이 인도주의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카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협을 적절히 활용하며 합의도출의 여지를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고위급접촉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북한의 잠수함 수십 척이 동·서해 기지를 이탈해 위치가 식별되지 않아 우리 군이 탐지전력을 증강해 추적에 나서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남북이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2차 고위급 접촉을 진행한 23일 무장한 군 장병들이 차량을 타고 파주시 통일대교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2+2 대화' 정착되나

안보실장·통일장관 vs 총정치국장·대남비서
양측 수석대표 김관진·황병서 1949년생 동갑

북한의 포격도발로 조성된 위기상황 해법 모색을 위한 남북간 고위급접촉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표단의 구성과 격(格)이다.

우리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장관,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양건 노동당 비서(겸 통일전선부장)로 이뤄진 남북 고위급접촉 대표단은 과거에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 구성이다.

당연히 이렇게 구성된 남북 대표단의 회담 성격의 만남도 처음이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지난해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영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등과 방남했을 당시 인천의 한 식당에서 김관진 실장과 오찬회담을 한 적이 있다. 우리 측에서는 당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그러나 당시의 회담은 식사를 겸한 환담 수준이었고 정식 회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김 실장과 황 총정치국장의 만남은 회담 성격으로는 처음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 국가안보를 책임진 장관급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의 군부서열 1위 총정치국장이 회담 형식의 첫 만남을 가진 것이다. 우리 통일부장관과 북측 대남담당 비서겸 통일전선부장이 회담 파트너로 만난 것도 처음이다.

앞으로 주목되는 것은 남북간 국가안보실장·통일부장관-총정치국장·대남담당 당비서겸 통전부장 간 이른바 '2+2' 대화 채널이 새로운 대화형식으로 정착되느냐 여부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동안 끊겼던 이른바 남북간 '통-통'라인이 복원되고, 대화파트너 격 측면에서도 우리 통일부장관과 북측 대남비서겸 통전부장 간 새로운 채널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북측이 이번 고위급접촉에서의 대화채널을 앞으로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북측이 남북간 군사충돌 위기속에서 임시방편으로 우리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양측 수석대표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서로 닮은꼴로 주목을 받았다. 김 안보실장과 황 총정치국장은 모두 한국전쟁 발발 1년 전인 1949년생으로 동갑이다. 김 안보실장은 그해 8월 27일 전주에서 태어났다.

황 총정치국장의 출생지와 생일은 명확하지 않지만 역시 전북 고창군 성내면 출신일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다. 그가 한국전쟁전 월북한 뒤 간첩으로 남파됐다가 체포돼 1985년 대전형무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전향 장기수 황필구씨의 아들이란 설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성내면 선산에 있는 황씨의 묘비에는 황병서란 이름은 적혀있지 않고 호적에도 관련 기록이 없다.

황 총정치국장이 정전협정 이후에도 남한에서 활동하다 1956년 북한으로 넘어가려다 사살된 빨치산 황재길씨의 아들이란 설도 있다. 황재길씨의 고향 등은 알려진 바가 없다. /연합뉴스